

동북아 한문학의 정립과 그 문화적 의미

문일환*

【국문초록】

중국의 한자, 한문이 조선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명확한 역사기록이 없어 문헌적으로는 입증할 수 없으나 위만조선시대부터는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108년에 중국의 한무제가 이른바 한사군을 설치하였으니 이 때에 이르러서는 한자, 한문이 상당히 보급·사용되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삼국시기 한자, 한문의 능란한 구사는 마침내 조선 한문학의 기원을 열어놓게 되었다. 이어 중국문학은 조선 한문학 발전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각 시대 혹은 시기마다 크고 작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한자가 전해진 것은 대개 4세기 초로 예측되나 그것을 문학창작에 이용하게 된 것은 7세기 이후였다. 한자, 한문의 전파는 단순한 언어문자의 전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직 미개화시기에 처해 있던 기타 동북아지역에 새로운 문명시대를 열어놓았음을 의미한다. 언어의 전파와 함께 중국문화의 영향은 각 지역의 사회, 정치, 경제, 과학기술, 철학사상 등 여러 분야로 확충되었다.

한자, 한문의 보급은 각 지역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발전하며 한문학의 전통을 확립하게 되었다. 한문학의 전통확립은 언어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문화라는 보다 포괄적인 수용과 전통확립을 보여준다.

한문학은 동북아지역에서 한문화의 영향과 더불어 각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 중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불교문화와 유교, 유학문화라 하겠다. 이 역시 동북아지역문화의 핵심이며 그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불교가 각 지역의 정신문화와 물질문화 등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면 정치, 문화, 교육 등 영역에서

* 중국 중앙민족대학 교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유학이라 본다. 이어 유학은 동북아지역문화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으며 드디어 이른바 '동북아유교문화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유학이 사회발전, 동북아지역 세 민족정신, 학술문화의 발전 등에 긍정적 역할을 미쳤지만 유학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제어 동북아, 한문학, 문화

동북아한문학은 나라나 민족을 막론하고 중국문학과 밀접한 련관 속에 동북아지역에서 한자에 의해 창조된 세 문학현상을 두고 말한다.

한자, 한문의 전파와 문화교류

하나의 민족 또는 국가가 나타났을 때는 필연 그 민족이나 국가에만 속하는 고유한 문화가 생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는 고립상태에서가 아니라 외부문화와의 끊임없는 상호교류과정에서 점차 완성되고 또한 그러한 교류과정에 선진문화를 부단히 섭취하고 낙후한 문화를 극복하면서 발전하게 된다.

문화교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문자이다¹⁾. 언어문자는 문화교류의 가장 주요한 수단인 하나로써 그 속에는 항상 정치, 경제 제 사회 영역의 사상 감정일반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 때문에 언어문자는 단순한 교제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기타 민족이나 국가와 공존할 수 있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문화교류에서의 언어문자의 역할을 우리는 언어문자를 수단으로 하는 문학에서도 뚜렷하게 찾아볼 수 있다. 어떠한 외국이나 타민족의 문학작품을

1) 『環太平洋地區文化與文學交流學術研討會論文集』, 天津古籍出版社, 1996년, 79면.

접하였을 때 우리는 그 작품에 반영된 사회현상을 통해 그 민족이나 국가의 특수한 사회관, 가치관 등을 감지하게 되며 또한 자아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

한자와 한문학이 곧 그러하였다. 한자의 동북아지역에서의 역할과 그것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한자를 매체로 하여 이루어진 중국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면에서의 교류과정에서도 아마 문학작품의 교류가 가장 많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만큼 동북아지역의 문화교류는 한자, 한문학의 전파와 상호 영향 속에서 더욱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으며 동북아지역의 '한자문화권' 또는 '유교문화권'의 형성도 한자, 한문학의 왕성한 교류와 떼어 놓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역사는 동북아지역의 상고시기부터 18-19세기 중엽까지 지속되었다.

중국의 한자, 한문이 조선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명확한 역사기록이 없어 문헌적으로는 입증할 수 없으나 기자의 동래설은 믿을 수 없더라도 위만조선시대부터는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기원전 108년에 중국의 한무제가 이른바 한사군을 설치하였으니 이때에 이르러서는 한자, 한문이 상당히 보급, 사용되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삼국시기에 이르러서도 조선에는 아직 고유의 민족문자가 없어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를 습득하여 사용하였는데 한자를 먼저 통용하기 시작한 것은 상류사회였다. 이어 한자사용은 본격화 되어 국가적인 표기문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또한 국가적인 서류, 교법 등의 유일한 표기수단으로 되었던 것이다.

『三國史記』 고구려본기 영양왕 11년조에 기록된 것을 보더라도 '국초부터 문자를 쓰기 시작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기사 백권을 써서는 이름을 留記라 하였다.'²⁾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고구려에서는 건국 초부터 한자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며 또 같은 책 고구려본기 소수림왕 2년조에도 '2년

2)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영양왕 11년조』.

여름인 6월에…太學을 세워 자제를 교육하였다.’³⁾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고구려에서 4세기 후반기부터 이미 학교교육을 통해 지배층의 자녀들에게 한자와 한문을 습득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밖에 백제에는 박사 왕인을 일본에 보내 『論語』, 『千字文』 같은 한문책을 전달, 습득케 하였다⁴⁾는 기록이 있고 또 근소왕 30년(375년)에는 고흥에 의해 『百濟書記』가 편찬되었다는 사실 등도 그 좋은 실례로 된다. 뿐만 아니라 신라에서도 좀 늦게 진흥왕 6년(545년)에 거찰부 등에 의해 『國史』가 편찬되었다고 한다.

삼국시기 한자, 한문의 능란한 구사는 마침내 조선 한문학의 기원을 열어 놓게 되었다. 이어 중국문학은 조선 한문학 발전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따라서 조선의 한문학은 중국문학과 불가분리의 관계를 갖게 되었다. 조선의 한문학에 대한 중국문학의 영향을 돌이켜 보면 삼국시기와 통일신라시기 초에는 주로 중국의 서한, 동한, 3국6조 문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특히는 4언고체시, 5언고체시의 영향과 문집들인 『文選』과 『詩經』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다. 이어 통일신라의 중후기와 고려 초에는 唐詩의 영향을 많이 받고 고려중엽이후 조선 건립 전까지는 주로 소동파문학과 송나라 비평문학의 영향이 컸다. 그리고 조선시기는 중국소설의 영향이 기본이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이 중국의 한자와 한문을 접촉하게 된 시기는 대개 4세기로 예측된다. 즉 313년 樂浪郡이 멸망하게 되자 일본으로 이주한 귀화인들이 한자, 한문을 포함한 유교, 불교 등을 전파시켰다.⁵⁾ 그리고 『古事記』와 『日本書記』에서도 應神朝 5세기 초에 왕인, 아직기 등 학자

3)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소수림왕 2년조』.

4) 『세계인명대사전』, 359면.

5) 허호일, 『일본문학사』, 연변대학출판사, 1992년, 5면.

들이 처음으로 일본에 학문을 전했다고 쓰고 있다. 당시 일본의 개화는 중국선진문화의 영향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일본에 한자가 전해진 것은 대개 4세기 초로 예측되지만 그것을 문학창작에 리용하게 된 것은 7세기 이후였다. 그 이전의 일본문학은 개인 창작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성원들의 집단적 창작이었다. 그러다 7세기 이후부터 한자가 사용되면서 구전문학이 문자로 고착하게 되고 또한 개인 창작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문학은 한자의 사용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한자 사용은 일본인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하여 한자의 훈과 음을 리용 하여 일본어를 표기하는 “萬葉假名”가 창제되고 이로부터 일본에는 한문학과 “萬葉假名”로 쓴 국문학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자, 한문의 전파는 단순한 언어문자의 전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직 미개화시기에 처해있던 기타 동북아지역에 새로운 문명시대를 열어놓았음을 의미한다. 한자, 한문의 전파와 아울러 중국문화의 영향은 이 지역의 사회, 정치, 경제, 과학기술, 철학사상 등 여러 분야로 확충 되었다. 아직 자체의 고유한 민족문자가 없었던 동북아 기타 지역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수밖에 없었으며 더군다나 그것과 함께 앞서가는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자체의 발전과 진보를 도모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로부터 중국문화는 이 지역의 전통문화 속에 자체의 흔적을 뚜렷이 남기게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점차 주도적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한자, 한문은 동북아지역 문화교류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기 한자문화권의 형성과 유교문화권의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할 수 있다.

한문학의 전통확립과 한문화의 수용

동북아 기타 지역에서 중국한문학을 쉽게 그리고 폭넓게 수용할 수 있었

던 것은 수용자로서 아직 자체 문자가 없었던 사정과 관련되며 또한 예술성이나 미학적으로 중국 한문학을 따를만한 자체의 문학이 없었던 것에도 관련된다. 바꾸어 말하여 이것은 선진문화에 대한 흡수현상 또는 그것에 의한 탁후한 문화의 동화였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기타 지역에서의 한문학의 수용 및 발전 과정을 보면 대개 중국의 이민작가군 또는 류학생, 류학생들의 활약과 관련되는 준비단계를 거쳐 단편적인 것들을 받아들인 데로부터 체계적인 수용, 단순한 모방으로부터 자창작, 중국의 풍물을 본떠 그리던 데로부터 자기민족을 직접 묘사하게 되면서 드디어 본토한문학의 완성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본토한문학은 이어 중국의 문학사조와의 밀접한 연관 속에 상호침투하며 창작, 발전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한자는 일종의 사고방식의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자의 결구, 의의와 음향이 그토록 잘 어울리는 한자, 그리고 '형상적인 문자', '음악적인 언어'⁶⁾로 특징되는 한어의 성조음을 등은 역대 수많은 문학가들의 창조를 거쳐 다종다양한 문학형식을 낳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학형식 속에는 유불도의 사상신앙과 중국의 역사, 문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깊은 문화적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오로지 오랜 시간에 걸친 습득과 노력에 의해서만이 그 참뜻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었다. 더구나 기타 나라의 작가라 할 때 한문학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형식에 따라 창작을 진행하자면 제2언어인 한어어휘에 익숙하여야 할 뿐더러 문학비평에도 능란하여야 했으며 또한 문학내용에 대한 감촉과 언어표달이 동시에 주어질 수 있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한문학을 볼 때 허다한 작가들이 중국작가에 못지않은 좋은 작품들을 내놓았다. 이것은 동북아 기타 지역의 작가들의 기발한 창조성과 모방성을 말해준다. 이것 역시 동북아 지역에서 한문학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6) 王曉平, 『亞洲漢文學』, 천진인민출판사, 2001년, 6면.

사람들이 한문학을 필요로 받아들이고 또는 한문학을 창작할 때 과시된 창조력을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다양한 열독방법을 강구한 것이다. 즉 기타 나라들에서는 자기 민족의 언어적 특징에 따라 한문학(중국문학을 포함)을 읽음에 있어서 부동한 랑독 방법을 취하였던 것이다. 레하여 조선은 한시를 읊을 때 순수한 음독의 방법을, 일본은 음과 훈을 결합하는, 또한 단어의 순서를 서로 전도하는 등의 일본식독법을 리용하였던 것이다. 2) 민족 언어를 한어화한 것이다. 즉 어떤 사물이나 내용을 표현함에 있어서 직접 한어를 받아들여 썼던 것이다. 3) 변체한문 또는 변체문체를 창조 리용한 것이다. 조선의 고려시기 나타난 “의인전기체”형식이나 조선시대소설의 “몽유록”형식이 곧 실례로 되며 일본 江戸時代말기와 明治초년에 류행된 “狂詩”, “兒文” 등 레가 곧 그러하다. 4) 번역, 주석과 개편형식을 잘 결합시킨 것이다. 한문학은 규범성이 아주 강한 것으로 옛것을 빌어 오늘을 말하는 수법을 많이 써왔다. 이로 인해 문학작품을 감상하는데 그리고 또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허나 사람들은 그것을 번역 또는 주석을 다는 방법 그리고 재개편을 하는 방법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한문학이 동북아 여러 나라에서 부단히 발전할 수 있었고 지어 수 백 년, 천여 년 지속될 수 있었던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민족전쟁이나 민족 대이동과 관련될 수도 있고 민족이나 국가의 행정관리 및 교육제도의 지속적인 강화나 추진을 위한 것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한 민족문학의 발전을 위한 보충, 풍부화의 수단으로 한문학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인 데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한문학이 동북아지역에서 그토록 활발한 발전을 보게 된 것은 ‘형상적인 문자’, ‘음악적인 효과’ 문학으로서의 한문학이 오랜 기간 기타 민족의 사고방식이나 심미의식과 밀접히 초점을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며 일정한 단계에 있어서 민족문화발전의 필요로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민족 문화가들이 자신의 정신적 행위으로써 서정서사의 수단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본토화 된 한문학으로 고착시켰던 사정⁴과도 관련된다.

한문학의 발전은 드디어 동북아지역에서 자체의 전통을 확립하게 되었다. 오랜 기간 한문학은 그 나라 또는 그 민족의 주도적인 문학으로 창작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민족 또는 국가의 문화적배경이 다름에 따라, 그리고 지리적 차이에 따라 동북아한문학에 대한 중국문학의 영향은 통일된것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또는 지역의 한문학 발전은 자체 상황에 따라 선명한 민족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한문학에 나타난 민족의식, 민족문화의 침투를 통해 찾아볼 수 있고 또한 문체문풍에 대한 독특한 선택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만약 구라파현대문학의 기초로 된 희랍, 로마의 고전문학이 세계적 의의를 갖는 문학이라 하면, 만약 고희랍, 로마문학의 영향 하에 성장하고 번영한 구라파 여러 국가의 문학이 상호 영향 속에 세계적인 문학이 되었다면, 중국문학 역시 세계적 의의를 갖는 문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러시아 학자인 알렉세예브가 1920년에 발표한 한 논문에서 지적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중국문학이 세계적인 문학이라 할 때 그 세계적 의의는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 한문학을 떠나서는 운운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한자문화 역시 세계적 의의를 가진 문화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자문화 역시 동북아지역을 포함한 전반 아시아지역에 널리 전파된 자체 전통을 갖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문학과 문화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갖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의 한문학의 수용과 한문학의 전통 확립은 동북아지역의 한자문화의 형성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 우선, 한문학은 문화전파의 주요한 載體였다.⁷⁾ 정문

7) 王曉平, 『亞洲漢文學』, 천진인민출판사, 2001년, 12면.

일치시대에 있어서 문학이라 할 때 그 내용에는 항상 사회, 정치, 문화, 도덕적인 요소들이 많이 첨가되어 있어 문학자체가 문화교류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문학과 함께 중국의 『論語』, 『四書五經』 등의 서책들이 같이 전해지기 마련이었다. 다음, 한문학은 문화교류 중 문화사절의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었다. 고대시기 조선이나 일본 등 나라들에서 중국에 사절단을 파견할 때에는 항상 문학적수양이 높은 학자들을 많이 뽑아 보냈다. 그리고 중국사절단을 맞는 본국의 관원도 대개 다 한문학에 능한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만남이 왕왕 시 짓기나 글 자랑으로 이어져 자기 민족 또는 자기 국가의 문명정도를 과시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이 주변 국가들의 문학을 접촉할 수 있게 된 것도 기실은 그 민족이나 지역의 한문학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문은 피차 정보를 주고받는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한문학은 또한 한자문화권과 기타 문화권간의 상호 교류의 중요한 도경이기도 하였다. 동북아지역의 민족들이나 국가들에서는 주로 한자로 된 불전을 통해 남아시아나 서아시아 및 기타 지역의 문학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명대 이후 서방의 전도사들에 의해 서방문화가 중국에 전파되었을 때도 주로는 한문학을 통해 동북아지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에서 그것을 접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만큼 한문학은 동북아지역의 지역문화의 형성과 그 성격규정 그리고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문학의 발전과 동북아지역문화의 형성

한문학은 동북아지역에서 한문화의 영향과 더불어 크게 다섯 개 발전단계를 밟았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는 중국 남북조시기가 해당된다. 불교의 성행과 관련하여 수많은 동북아지역의 승려들이 중국에 와서 불교공부를 하는 동시에 중국문화를 접촉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많은 중국인들이 동북아 쪽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중원의 전고와 사상문화가 또한 많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예를 들자면 고구려, 백제, 신라에 정착하였던 한인들이 곧 그러하였다. 당대 이후에는 중국에 와서 공부하는 류학생, 류학승들의 수가 많이 늘어(통계에 의하면 837년 재당류학생이 216명이상에 달했다고 함)⁸⁾ 장안에서 직접 중국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들은 중국의 시인들과 깊이 교류하면서 서로 시흥을 돋구었을 뿐만 아니라 귀국 시에는 또 많은 중국서적들을 가지고 가서 자국의 정치, 종교무대에서 활약하였다. 신라의 최치원이 그러하였으며 『三教之歸』, 『文境秘符論』 등 시문과 시론 등과 훈구학 저술을 남긴 일본의 弘法大師 空海가 그 대표적인 인물로 된다.

두 번째 발전단계에는 8세기에서 10세기가 해당된다. 이 시기에는 특히 일본에서 漢唐문학의 영향이 아주 컸는데 불교가 대대적인 흥성을 보게 되고 또한 漢學의 발전과 더불어 교육제도가 완비되어갔다. 주로 궁정한문학이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서로서 『古事記』, 『日本書記』 등을 들 수 있고 시작품으로는 『懷風藻』, 『文華秀麗集』을 들 수 있으며 문장으로는 『經國集』, 『本朝文粹』 등을 들 수 있다. 같은 시기에 조선반도에서는 변려문이 한창 성행하였고 고체시, 근체시들이 많이 창출되었다.

세 번째 발전단계에는 12세기부터 15세기가 해당된다. 고려는 宋元문학의 영향이 가장 크던 시기로서 神宗문학의 풍미와 함께 과거제도를 배경으로 문인관료들에 의한 작가대오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허나 이시기 일본에서는 다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한문학이 상대적으로 저조기에 처하게 되었다.

네 번째 발전단계에는 15세기부터 17세기가 해당된다. 이 시기는 주로

8) 徐元和, 『儒學與東方文化』, 인민출판사, 1994년, 243면.

중국의 주자성리학이 동북아지역에 크게 퍼져가게 되면서 여러 나라의 한문학 역시 주로 程朱理學 문예사상의 영향과 관련되어 있었다.

다섯 번째 발전단계에는 18세기로부터 20세기 초가 해당된다. 주로는 明清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던 시기였다. 이 단계에 이르러 동북아지역의 한문학수준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중국문학과와의 거리가 갈수록 가까워졌다. 중국의 문학사조를 보다 빨리 받아들여지게 되고 특히 이 시기에 중국의 백화소설의 영향 하에 소설 창작이 새로운 발전을 보게 되었으며 또한 한문학이 궁정중심으로부터 점차 서민문학으로 전환되었다. 일본을 보더라도 江戸時代에 이르러 문예부흥시대를 맞게 되어 한시는 經學과 한걸음 더 분리되고 “海內文章落布衣”국면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조선에서도 후기에 당송파문학과 실학과문학이 활발해졌다. 이어 19세기를 거쳐 20세기 초에 이르면서 여러 나라들의 한문학은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동북아 기타 민족이나 국가에서의 한문학의 수용과 그 발전과정은 한자문화, 중국문화의 전파와 밀접히 련관되어 있었다. 물론 동북아 기타 지역에 대한 한자문화의 영향은 다양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중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당연히 불교문화와 유교, 유학문화라 하겠다. 이 역시 동북아지역문화의 핵심이며 그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불교는 원래 인도의 종교였지만 조선이나 일본에 들어간 것은 중국불교였다. 더군다나 일본의 불교는 조선을 거쳐 들어간 것으로 552년 백제의 성왕이 불경과 금동석가여래상을 일본에 보냄으로써⁹⁾ 일본인들이 처음으로 부처상을 보게 되고 그것이 또한 일본 불교의 첫 발단이 되었다 한다.

불교는 조선이나 일본에 들어가서 사상적으로 사람들을 뒤흔들고 세뇌하였을 뿐 만 아니라 이 두 나라의 문화추진의 중심세력이 되어 신문화뿐 만 아니라 물질문화, 즉 생활환경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9) 김원룡, 『한국문화의 기원』, 탐구당, 1992년, 257면.

불교는 동북아지역문화형성에, 바꾸어 말하여 한문화형성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할 수 있다. 불교는 단지 종교로서가 아니라 불경의 리해상 한자의 보급에도 큰 공을 세웠으며 또한 한때는 일종의 『중국학』의 모체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조선이나 일본 등 동북아지역의 지역문화형성측면에서 볼 때 불교가 사상, 건축, 미술 등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또한 불교자체도 커다란 발전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허나 정치, 문화, 교육 등 영역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그래도 유교와 유학이라고 본다. 이어 유교, 유학은 동북아지역문화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으며 드디어 이른바 ‘동북아유교문화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일찍 진한(기원전 2세기좌우)시기부터 중국의 유학은 조선에 전파되어 조선사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뿐더러 갈수록 조선화 되어 후에는 선명한 민족특색을 갖춘 조선유학을 형성하게 되었다. 조선에서는 유교, 유학이 2천여 년 지속되면서 조선민족전통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선의 문화사는 곧 조선유교, 유학문화의 발전사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유학은 최초 조선을 통해 들어갔다. 상기한 바 그대로 기원 285년에 백제 박사 왕인이 『論語』 10권과 『千字文』 1권을 일본에 가져간 것을 첫 시작으로 중국의 유학전적이 처음으로 일본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 7세기에 이르러 중국과 일본 두 나라가 직접 서로 사절단을 보냄으로써 문화교류가 직통으로 이루어지기전까지 근 300여 년간 중국의 『易』, 『禮』, 『春秋』 등 유학전적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고대사상문화는 거의 조선반도를 통해 일본에 전해졌던 것이다.

동북아지역에 대한 중국유학의 전파과정을 돌이켜 볼 때 유학은 사회의 식형태의 하나로서 이 지역의 민족이나 국가 그리고 발전에 아주 중요하고

역사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유학은 동북아지역의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동북아지역의 문화에 비해 중국의 고대문화는 장기간 선진문화로서 앞서갔다. 중국의 선진문화의 전파는 자연 동북아지역의 사회적 진보와 발전을 추진하였다. 바꾸어 말해 중국의 유학은 중국 관료정치의 풍부한 경험을 총화한 것으로서 동북아지역 국가의 통치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여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방안으로 모방하고 본받았던 것이다. 레하여 조선을 보더라도 삼국시기에 중국을 본떠 설치한 ‘太學’, ‘讀書三品科’, 고려시기에 실시한 과거제도, 조선시기에 제정된 일련의 문물제도와 유교를 국시하였다는 사실 등이 그러하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본에서 고대에 천황위를 서로 양보하는 미덕이 있었다는 것과 인덕천황이 인정을 실시하였다는 설, 7세기 일본의 대화개혁이 유학사상을 그 지도사상으로 하고 중국의 정치기구를 본떠 관료제도를 세움으로써 유학에 기초한 물령정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17세기 초에 건립된 德川幕府때 주자학을 관방철학으로 확립하였다는 것 등이 곧 그 실례가 된다.

둘째, 유학은 동북아지역 제 민족정신의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유학은 동북아지역의 특유한 전통사상과 융합하게 되면서 여러 민족의 보다 뚜렷한 민족정신을 형성하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일본의 민족정신인 大和魂이 곧 그러하다. 일본에서의 유학은 주로 神道와의 결합을 넘두에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이른바 ‘和魂漢才’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倭魂’, ‘日本魂’이라 할 때는 우선 신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중국 유학에 대한 약간의 수정을 거쳐 그것을 일본의 신도와 결부시켜 치세에 리용한 과정이 곧바로 일본에서의 유학의 본토화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때로 중국과 일본의 유학의 차이점을 낳기도 하였다. 예를 들자면 두 나라에서는 충과 효에 대한 관점을 서로 달리하고 있었다. ‘유학은 효를 으뜸 가운데 첫

번째에 꼽지만 우리 일본에서는 충을 오륜 중의 첫 번째로 친다.’¹⁰⁾ 일본학자들은 충과 효가 다 겸비되는 것을 일본도덕의 특징이라 주장한다. 유학과 신도의 결합은 또 일본 무사도의 토대로 되었다. 일본의 민족정신인 ‘大和魂’ 속에 유학의 기본정신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일본의 국민성에도 유교사상의 흔적이 력력하다. 이 같은 실례를 우리는 조선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바 삼국시기와 통일신라시기 조선민족의 중요한 도덕사상체계였으며 또한 민족정신이었던 화랑도사상이 곧 그러하다.

셋째, 유학은 동북아지역의 학술문화의 변천, 발전과정에도 긍정적 역할을 낳았다. 동북아지역의 학술문화는 중국의 漢學, 특히는 유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돌이켜 볼 때 동북아지역에서의 중국초기유학의 전파와 그 쇠퇴, 중국 불교의 성행과 몰락, 이어 일어난 신유학의 성행과 그 종말 등은 모두 이 지역의 학술문화의 변천과정과 그 흥망성쇠를 반영하고 있다. 유학이 가져다준 동북아학술문화의 영향은 철학사상 분야뿐만 아니라 사학, 문학 등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바 여기에서는 략하기로 한다.

유학이 동북아지역의 사회발전과 민족정신의 고양 그리고 진지한 학술문화환경의 창조에 이바지한 기여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유학은 동북아지역 제 민족과 국가의 공존의 문화체계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허나 본문을 마무리 지으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유학과 동북아지역고유문화와의 관계, 유학과 인간성과의 관계, 유학과 공업혁명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유학이 동북아지역 제 민족과 국가에 일찍이 그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중국문화의 선진성과 특히는 이 지역의 문화발전이 아직 미개상태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며 너무 략후하였기 때문이다. 상술한바 있

10) 吉川惟足, 『神學承傳記』.

지만 유학의 전파와 더불어 락후한 문화가 개변되고 따라서 유학에 의해 문물제도, 철학사상, 언어문자, 문학예술 등 전반사회 여러 분야의 진보와 발전이 도모되었다. 허나 한편 그것은 동북아지역 제 민족이나 국가의 재래전통문화의 자연발생발전의 커다란 걸림돌이자 장애물이기도 하였다. 조선과 일본은 한문화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여도 자체의 독특한 민족 또는 지역 원시문화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유학을 비롯한 중국문화의 침투로 이러한 원시문화는 점차 압살되고 거의 한문화에 의해 대체되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그러하거니와 조선은 더욱 그러하였다. 수 백 년을 두고 조선반도의 가치관과 의식구조 그리고 종교 등은 거의 중국문화의 지배 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발전전지에서 볼 때 유학은 인간성의 지양과 법제사회건설의 중요한 장애물이기도 하였다. 력사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인간성과 법제는 인간존재와 사회질서유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허나 유학의 룬리도덕사상과 가치관은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방식과 표현의식 그리고 개성발전을 무시하여왔다. 그런가 하면 유교, 유학의 천제의식과 왕권정치는 또한 인간의 평등권과 인간존재가치를 말살하며 사회적인 법제건설을 저애하여왔다. 그만큼 유학은 인간의 존재와 사회발전에 역작용을 하였다 할 수 있다.

유학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제기되는 문제는 동북아지역에서는 어째서 공업혁명을 맞이할 수 없었는가 하는 문제다. 이 역시 유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동방국가들이 력사적으로 서방에 뒤떨어져 있었던 것도 유교, 유학에서 그 근원을 찾아보아야 한다. 특히 유교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되고 있는 모험정신과 경쟁의식의 결여가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저서 및 논문

- 리해산, 『조선한문학사』, 연변대학출판사, 1995년.
한국문학회, 『해외문화접촉과 한국문학』, 세종출판사, 2003년.
이병수 등, 『한국한문학사』, 반도출판사, 1991년.
夏康達·王曉平, 『二十世紀國外中國文學研究』, 천진인민출판사, 1999년.
陳景富, 『中韓佛教關係一千年』, 종교문화출판사, 1999년.
張德秀選注, 『朝鮮民族古代漢文詩選注』, 료녕민족출판사, 2002년.
馮天瑜·楊華, 『中國文化發展軌跡』, 상해인민출판사, 2000년.
李勤德, 『中國區域文化』, 山西高校聯合出版社, 1995년.
張立文 등 주필, 『中外儒學比較研究』, 동방출판사, 1998년.
張非非 등 공저, 『中韓關係史』, 사회과학문헌출판사, 1998년.

Abstract

Chinese Literature in East Asia and Its Meanings

Mun, Il-Hwan

Chinese Characters were imported since Wiman Chosôn period around A.D.108. During Three Kingdom period, Korean were likely to concerned with Chinese literature. The Chinese Characters not only brought linguistic changes in Korean language system but also influence on many fields like the society, politics, and philosophy. As this imported Chinese Characters were combined into the indigenous cultures since then, it also had its own tradition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Chinese Literature encouraged the cultural base of Buddhism and Confucianism. While Buddhism inspired many changes in the philosophy and mentality, Confucianism functioned primarily on practical fields such as politics, education, and culture.

Key Word

East Asia, Chinese Characters, Chinese Literature, Culture